

## 이호석·정은주 2관왕 질주

### 쇼트트랙 월드컵 남녀 1,500m 이어 1,000m 우승

한국 남자 쇼트트랙의 2인자 이호석(21·경희대)과 여자 쇼트트랙의 차세대 주자 정은주(19·한국체대 입학예정)가 2006~200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월드컵 6차 대회에서 나란히 남녀부 2관왕에 올랐다.

이호석은 12일(한국시간) 새벽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막을 내린 대회 마지막 날 남

자 1,000m 결승에서 1분28초623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전날 1,500m 금메달에 이어 대회 2관왕의 영광을 차지했다.

전날 여자 1,500m에서 금메달을 따냈던 정은주도 1,000m 결승에서 1분28초623의 월등한 기록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여자부 2관왕에 이름을 올렸다.

함께 출전한 변천사(20·한국체대)는 마지막 바퀴에서 중국의 주밀레에게 추월을 당해 3위로 결승선을 지났지만 주밀레의 실격이 선언되면서 은메달로 올라섰다.

또 여자 500m 2차 레이스에서는 중국의 왕멍이 전날 1차 레이스 우승에 이어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건 가운데 전지수(23·한국체대) 역시 연속 동메달을 따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한국 남녀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5개, 동메달 4개를 따내는 성과를 거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아빠 우승 축하해요” 필 미켈슨이 12일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골프링크스 열린 PGA 투어 AT&T 페블비치내셔널프로암 최종 라운드에서 우승을 확정지은 후 자신의 딸 소피아(왼쪽), 이만다를 껴안고 있다. 이를 부려는 이 순간 무슨 말을 주고받았을까,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KIA 디전트 캠프를 가다



미야자키=박진표 기자



일본 미야자키 오쿠라기하마 구장에 차려진 스프링 캠프에서 KIA 투수들이 수비 훈련을 하고 있다.

## 전지훈련 玉石 가린다

### 자체 홍백전 실시...실전모드 돌입 신인투수 양현종·오준형 돋보여

“이제부터는 실전이다.” 일본 미야자키 스프링캠프에서 맹훈련을 거듭하고 있는 KIA가 실전 모드에 돌입했다.

KIA는 훈련장인 일본 오쿠라기하마 구장에서 지난 11일 첫 홍백전을 시작으로 13, 15, 17일 등 총 4번의 평가전을 치른다.

이번 홍백전은 신인 투수들의 기량 점검과 야수들의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한 것이다.

11일 열린 홍백전에선 신인 투수 양현종(18)과 오준형(23)의 활약이 돋보였다.

백팀 4번 투수로 나선 양현종은 최고 구속 143km의 직구를 앞세워 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고, 이어 등판한 오준형도

2이닝동안 1피안타 무실점으로 인상적인 피칭을 펼쳤다.

3번째 투수 박정태도 2이닝동안 7타자를 상대로 2피안타 1탈삼진을 기록했고, 선발로 나선 진민호는 2이닝 3피안타 2탈삼진 1실점으로 합격점을 받았다.

백팀에서는 1번타자 겸 중견수로 나선 이종범이 4타수 1안타 2득점으로 방망이 감각을 뽐냈고, 김종국(2루수)과 이재주(1루수)도 각각 3타수 2안타를 때려냈다.

또 홍팀의 선발투수로 나선 좌완 전병두는 2이닝 2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으로 3선발의 가능성을 밝혔고, 이어던진 이동현도 2이닝 1피안타 1볼넷 1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3번째 투수인 임준혁은 최고구속 145

km를 찍으면서 2이닝 동안 8타자를 상대해 2피안타 4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홍팀 1번타자 이현곤(3루수)은 4타수 1안타 1득점을, 2번타자 손지환(2루수)은 5타수 3안타 1타점을, 장성호도 4타수 2안타 1득점을 올렸다. 이날 홍백전은 2-2 무승부로 마감됐다.

서정환 KIA 감독은 “첫 평가전이기에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신인들의 패기 넘치는 활약이 돋보였다”면서 “앞으로 남은 연습경기를 통해 최종적인 ‘육성’을 가려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IA는 자체 홍백전에 이어 2월22일 낮 12시30분 미야자키 선마린 스타디움에서 요미우리와의 연습경기를 갖는다. 이승엽이 소속된 1군이 아니라 1.5군 선수들이다.

27일에는 아이비 구장에서 오후 1시에 소프트뱅크와의 연습경기를, 3월1일 오후 1시에는 사이토 구장에서 야쿠르트와 격돌한다.

/lucky@kwangju.co.kr

## 또 ‘부상 경계령’ 고우석·심재학·장문석 귀국

일본 미야자키에서 스프링캠프에 한창인 KIA 선수단에 부상 경계령이 내려졌다.

KIA 관계자는 12일 “오른 손바닥 쪽

아래 뼈가 골절된 심재학과 왼쪽 무릎뼈에 금이 간 장문석이 13일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앞서 지난 11일 투수 고우석(23)이 오른쪽 어깨 통

증으로 귀국한 상태다.

심재학(35)은 전날 홍백전에서 타격 도중 오른쪽 손바닥 뼈에 금이 가수술이 불가피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장문석(33)은 부상 부위 정밀 검진이 필요하다. 장문석은 정밀 검진 후 이상이 없다면 2군 선수들과 함께 광주에서 훈련할 예정이다. /lucky@kwangju.co.kr



일본 미야자키에서 열리고 있는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전지훈련에 참가중인 이승엽이 선마린 스타디움에서 오가사와라의 수비훈련을 지켜보고 있다.

## 장타는 역시 이승엽

### 팀 타격훈련서 홈런 14개...3번 오가사와라는 1개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3.4번 타자로 나설 오가사와라 미치히로와 이승엽이 전날 스프링캠프에서 처음으로 나란히 배팅 케이지에 들어서 훈련경쟁을 벌였다고 스포츠전문 일간지 ‘스포츠투치’가 12일 전했다.

이승엽과 오가사와라는 전날 규슈 미야자키 선마린 스타디움서 벌어진 첫 청백전에는 결장하고 인근 2군 구장인 휴가 스타디

움에서 나란히 자율 타격훈련을 했다. 좌우 펜스가 각각 100m, 가운데 펜스가 122m인 선마린 스타디움과 달리 휴가스타디움은 가운데 펜스는 같지만 좌우 92m에 불과한 작은 구장.

공이 멀리 넘어가지 못하도록 좌우 펜스 뒤쪽에 높이 7~8m 가량의 대형 천막벽이 자리 잡고 있다.

이승엽은 68차례 타격을 해 14차례이나 펜스 바깥으로 타구를 날렸다. 우측 외야 대형 천막벽 상단을 맞히는 타구도 3개나 있었다. 반면 오가사와라는 84번을 스윙해 좌측 펜스쪽으로 밀어서 홈런 1개를 기록했다. 스포츠투치는 오가사와라의 스프링캠프 첫 홈런이라고 썼다.

한편 고도 통신, 호치 신문, 스포츠투치, 닛칸스포츠, 산케이스포츠 등 현재 요미우리 스프링캠프를 취재 중인 일본 언론인 대다수는 양대 리그를 통틀어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중심 타선 파괴력이 전체 12개 팀 가운데 3~4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센트럴 리그에서는 주니치 드래곤스에 이어 2~3위권이다. 또 퍼시픽리그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중심 타선을 최고로 평가했다.

## 미켈슨 시즌 첫 우승

### 최경주 최종라운드 진출 실패

### PGA 페블비치프로암 최종

시즌 초반 3개 대회에서 부진했던 필 미켈슨(미국)이 시즌 첫 우승을 신고했다. 미켈슨은 12일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의 페블비치골프링크스(파72·6천816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페블비치내셔널프로암 최종 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쳐 4라운드 합계 20언더파 268타로 정상에 올랐다.

2위 케빈 서덜랜드(미국·273타)를 5타차로 따돌리며 완승을 거둔 미켈슨은 1997년 마크 오메라(미국)가 세웠던 대회 최소타 기록과 타이틀을 이뤘다.

1998년과 2005년에 이어 이 대회 세 번째 왕좌에 오른 미켈슨은 2007년 시즌 첫 우승의 기쁨과 함께 PGA 투어 통산 서른 번째 우승으로 비제이 싱(피지)과 함께 통산 승수에서 공동 16위에 이름을 올렸다.

우승상금 99만 달러를 받아 통산 상금을 4천53만 달러로 늘린 미켈슨은 타이거 우즈(미국), 싱에 이어 이 부문 4천만 달러를 돌파한 세 번째 선수다.

아직 시즌 첫 우승을 올리지 못한 세계랭킹 2위 짐 퓨릭(미국)은 3타를 줄였지만 공동 6위(11언더파 277타)에 그쳤고 싱도 3언더파 69타를 쳤으나 공동 11위(9언더파 279타)에 머물렀다.

3라운드까지 공동 65위로 최종 라운드 진출에 실패한 최경주(37·나이카골프)는 상금 1만1천달러를 받았다. /최재호기자 lion@

## LPGA 투어 16일 개막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16일(한국시간) 개막돼 8개월 대장정에 들어간다.

하와이 호놀룰루 터베이골프장에서 열린 SBS오픈으로 테이프를 끊게 될 LPGA 투어는 11월19일 끝나는 ADT챔피언십까지 모두 31개 대회로 치러진다.

지난 1월 치러진 여자월드컵과 9월 솔하임컵, 연말에 개최되는 렉서스컵 등 4개 비공식 대회까지 합치면 35개 대회지만 상금 랭킹에 포함되는 대회는 31개로 상금규모가 5천400여만 달러에 이르러 대회당 160만 달러가 걸려있다.

올해 LPGA 투어의 관전 포인트는 역시 더욱 거세진 ‘한류’에 모아진다.

2007년 투어 카드를 지닌 한국인 또는 한국계 선수는 모두 49명에 이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